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 정경분리 원칙 견지와 통합형 개성자구로 확대 개발 필요

□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 정경분리 원칙 견지와 통합형 개성지구로 확대 개발 필요

■ 개성공단 사업의 개요

12월 15일은 개성공단 첫 제품이 나온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가동 10년 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보였으나, 1단계 사업은 정체 상황이며 2~3단계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다. 현재 개발면적은 전체 개발계획 대비 5%, 업체 수 6% 내외에 불과하며,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등의 해결과제도 상존한다. 이에 개성공단 가동 10년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평가해본 후, 발전 방안을 제시해본다.

■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

(긍정적 성과) 개성공단 사업은 양적 측면에서 남북한 근로자 5만 4,000여 명이 함께 생산 활동을 하면서, 2012년 기준으로 연간 4.7억 달러를 생산하는 **상생의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경협 사업으로, 남북교역과 상업적 거래의 99%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10년간 남한에게는 32.6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게는 3.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된다. 부문별로는 남한의 경우, 공단 매출액 22.0억 달러와 건설·설비투자 10.6억 달러를, 북한의 경우에는 임금 수입 3.0억 달러를 비롯해 토지임대료와 중간재 판매액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총 3단계까지의 개발 계획이 진행된다면 남한은 총 642.8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은 43.9억 달러의 외화벌이가 기대된다.

질적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의 남북경협 시대 개막과 함께, 북한 경제에게는 개혁·개방과 제조업 부문의 시장경제 학습장 역할을 하였다. 남한 경제에게는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과 해외 진출 기업의 U-turn 특구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상호 이질감 해소는 물론, 공단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긴밀한 접촉과 인프라 조성은 남북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과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한계와 문제점) 경제 외적 불안요인에 민감할 뿐 아니라, 3통과 투자보장 등의 법·제도화 장치와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대책 미흡, 원산지 규정 등 해외 판로 확보 상의 문제와 노무관리의 자율성 부족 등은 개성공단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첫째,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최소화와 정경분리 원칙을 토대로 개성공단 지역을 정치 중립화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 등 경협 사업이 정치·군사적 사안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5.24 조치 완화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신규 투자 허용과 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U-turn 특구 기지로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개성공단 사업을 남북 상생의 성공적 경협 모델로 정착시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 구상 실현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DMZ 통과 사업으로 이의 활성화는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북한 협조 유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공단과 연결되는 경의선 재개·확장은 TKR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시발점이 된다.

끝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가능하기 위해선 통합형 모델과 국제화를 추구하면서 제품의 한국산 인정 노력이 요구된다. 2~3단계 조기착공으로 현재의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과 상업·물류·관광이 추가된 '통합형 개성지구'로 개발해야 한다.

1. 개성공단 사업 개요

- (현황) 개성공단 사업은 가동 10년 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보였으나, 현재 1단계 사업은 정체 상황이며 2~3단계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
 - 2004년 12월에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개성공단은 54,000여 명의 남북한 인력이 함께 생산 활동을 하는 상생(win-win)의 경협 모델 실험장으로 발전
 - 그러나 전체 개발계획 대비, 현재 개발 면적은 5%, 업체 수 6%, 고용 인력은 15% 내외 수준에 불과
 - 1단계 100만평(3.3km²) 조성은 2007년에 완료되었으나, 실제 입주기업은 계획(300개) 대비 약 40% 수준인 125개에 불과한 상황
 - 또한, 남북한이 합의한 2단계(150만평) 및 3단계(350만평)의 공단 개발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
 - 특히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미해결, 북한의 노동력의 공급 부족, 미국 등 서방권 경제에서의 한국산 불인정 등은 개성공단 사업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 개성공단 전체 개발 계획 대비 실제 운영 현황 >

	전체 개발 계획	실제 운영 현황	전체 계획 대비 비중
개발면적	총 2,000만 평	1단계 100만평	5% 수준
업체수	총 2,000개	125개	6% 수준
고용인력	총 35만 명	53,000여 명	15% 수준

- (연구 목적) 개성공단 가동 10년간의 성과를 긍정적 측면과 미흡한 부문 및 한계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발전 방안을 살펴보기로 함
 - 특히 개성공단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발전가능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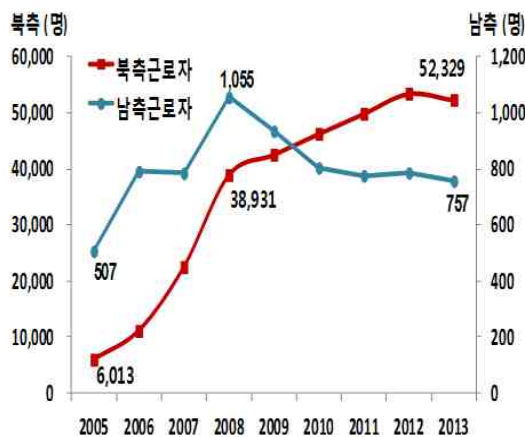
2.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

① 성과 평가

○ (양적 측면) 2004년 12월에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북한 근로자 고용자 수와 생산액,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서 괄목한 성장을 보였음

- 근로자 수 : 2014년 9월말 현재, 북한 5만 3,386명과 남한 788명을 고용
 - 북한 근로자는 모두 고졸(83.1%) 이상의 학력으로, 30~40대 연령 비중(69.6%)이 가장 많음
 - 1인당 보수는 2006년 68.1 달러 → 2013년 128.5 달러 → 2014년 6월 150.1 달러로 상승
- 생산액 : 연간 4.7억 달러를 생산하는 남북 공동의 생산 현장으로 발전
 - 2005년 1,491만 달러를 생산한 이후 2007년 1.8억 달러, 2012년 4.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는 2.3억 달러로 가동 중단 이전 상태를 회복

<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



<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생산 추이 >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각호 참조

- 수출액 : 개성공단은 연간 약 4,000만 달러의 수출 공단으로 성장
 - 2005년 87만 달러 → 2007년 3,970만 달러 → 2012년 3,640만 달러를 기록
- 개성공단 교역액 비중 : 2012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남북 교역은 19.7억 달러로, 남북한 총 교역 및 상업적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
 - 총 교역 대비 : 2005년 16.7%에서 2012년에 99.6%로 6배 이상 증가

- 상업적 거래 대비 : 2005년 25.6%에서 2012년 99.9%로 3배 이상 증가
- 2010년부터 개성공단 사업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이유는 5.24 대북 제재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위탁 교역의 중단에 기인함

<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백만 달러)

		2005	2006	2008	2010	2012	2013
총 교역(A)		1,056	1,350	1,820	1,912	1,971	1,136
상업적 거래(B)		690	928	1,712	1,889	1,962	1,132
비상업적 거래		366	422	108	23	9	3
개성공단(C)		177	299	808	1,443	1,961	1,132
개성 공단 비중	총 교역 대비(C/A)	16.7%	22.1%	44.4%	75.5%	99.5%	99.6%
	상업적 거래 대비(C/B)	25.6%	32.2%	47.2%	76.4%	99.9%	100.0%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현황 각호
 주 : 상업적 거래는 일반교역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등의 경제협력 사업의 합이며, 비상업적 거래는 전체 남북교역 사업에서 이를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등임.

-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 제시 : 개성공단 개발로 남한은 32.6억 달러, 북한은 3.8억 달러의 직접적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며, 총 3단계의 개발이 완공될 경우에는 남북한은 총 686.7억 달러의 효과가 기대됨
- 남한은 매출액과 건설 및 설비투자 등의 내수 진작 효과를 비롯, 인건비 절감의 기대 효과가 존재¹⁾

<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기대 효과 >

(단위 : 백만 달러)

	내수 진작 효과					인건비 절감
	매출액	건설투자	설비투자	중간재 판매	소계	
실적치 (2005~13)	2,200.0	800.0	264.0	1,239.1	3,264.0	4,936.4
예상치 (~3단계)	47,800.0	7,480.0	5,736.0	24,947.7	61,016.0	25,052.8
합계	50,000.0	8,280.0	6,000.0	26,186.9	64,280.0	29,989.2

주 : 1) 제3단계가 완성되어 첫 가동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건설투자에는 부지조성비 포함되어 있으며, 예상치는 개발사업자의 예상치에서 실적치를 뺀 값임.
 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기준으로, 설비투자 비중은 매출액 대비 12%, 매출액과 건설·설비 투자의 중간재 판매 비중은 원부자재 비중(제조업 매출은 70%, 건설·기계 설비는 30%)과 국산화율 70%, 납축 조달 비율 95%를 적용(설비투자는 100%)하였으며, 중간재 판매는 매출액에 이미 반영되었기에 소계와 합계에는 이를 제외함.

1) 2005~13년 개성공단의 건설 및 설비투자의 연평균 실적치는 2012년 기준의 국내 건설·설비투자 318.0조원(2012년 기준, 평균 환율 1,127원/달러)의 0.04%에 해당함.

- 북한도 지난 10년간 약 3.0억 달러의 임금을 비롯해 토지 임대료 등의 수입을 거뒀으며, 총 3단계가 모두 완공될 경우에는 약 43.9억 달러의 효과 기대

<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기대 효과 >

(단위 : 백만 달러)

	임금 수입	중간재 판매액	토지 임대료	재정 수입	합계
실적치 (2005~13)	297.1	62.3	16.0	-	375.4
예상치 (~3단계)	2,304.9	1,249.6	128.0	329.0	4,011.5
합계	2,602.0	1,311.9	144.0	329.0	4,387.0

주 : 1) 중간재 판매의 복측 조달 비율은 5%로 가정. 단 설비투자는 제외함.
 2) 토지 임대료는 제1단계 100만평에 1,600만 달러 지급 사례를 적용.
 3) 합계는 임금수입, 중간재 판매액, 토지임대료, 재정수입의 총합임.

○ (질적 측면) 경제적 측면은 물론, 정치·사회문화 측면에서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 남북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등에 크게 기여

- 경제적 측면 : 유무상통 원리에 입각한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 제공과 함께,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의 남북경협 시대 개막과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 역할
 - 북한 경제 : 북한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및 자본주의 학습의 실험장 역할, 노동생산성 향상과 산업 인프라 확충 등에 기여
 - 특히 단순 외화벌이가 아니라 제조업 부문의 시장경제 학습효과를 통해 경제 회복의 자신감과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북한경제 선순환 구조의 토대 제공
 - 남한 경제 :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과 해외 진출기업의 U-turn 특구로서의 역할, 내수경기 활성화, 대기업-중소기업 및 민관 합동의 동반 성장 모델을 제공
 - 특히 개성공단 개발 및 사업 운영에는 남한의 대규모 자본과 설비·원부자재가 투입되는 만큼, 내수 진작을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정치·군사적 측면 :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
 - 당국간 대화 중단 속에서도 공단 유지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과 정치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 역할을 수행
 - 특히 공단 조성을 계기로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킴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음
 - 또한 대립과 갈등의 비무장지대(DMZ)를 화해·협력의 평화적 통일의 꿈을 실현하는 평화적 공간(Dream Making Zone)으로 변화시킨 '평화 만들기' 사업임

- **사회·문화적 측면** : 상호 이질감 해소와 민족·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
 - 개성공단 사업을 통한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는 남북간 상호간의 이질감과 적대감 해소는 물론,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신뢰 형성 등에 기여
 - 공단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빈번한 접촉과 만남은 동포애적인 공감대 형성과 민족 통합에 기여하였으며, 장기간 고용으로 인해 남북한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가족사와 생활사를 함께 공유하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성됨
 - 또한 개성의 역사유물과 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관광 개발과 UNESCO 세계 문화유산 등재 노력 등은 한국인의 위대함을 일깨워주고 문화공동체 형성의 돌파구 마련에도 큰 보탬이 됨

- **통일 기반 조성 측면** : 경제·문화공동체 형성으로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
 - 개성공단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긴밀한 접촉과 자유왕래,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은 '사실상의 통일' 시험장 운영의 터전을 제공
 - 남북한 주민이 함께 상생의 생산활동을 하면서 '통일의 희망감과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중장기적으론 남북간 경제력 격차 완화로 통일비용 절감에도 기여
 - 또한 개성 사업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는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를 완화

② 한계와 문제점

- **경제 외적 불안 요인에 민감, 법·제도화 장치와 노동력 확보 대책 미흡 등의 해결 과제가 존재**
 - **정치·군사적 요인에 민감** : 해외공단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²⁾
 - 특히 남북관계 불안정성으로 인한 2008년 12월 1일의 통행 제한 조치와 2013년 4~9월의 일시 가동 중단 조치 등은 생산과 수출 감소, 해외 바이어 이탈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남
 - **법·제도적 장치 미흡** : 3통 문제와 4대 경험합의서 등의 미이행 등
 - 특히 3통(통행, 통관, 통신)은 개성공단 활성화의 매우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
 - 이외에도 북측의 일방적 규정 무시와 갑작스런 변경 등의 불안 요인이 존재

2) 해외 공단 대비 개성공단의 취약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남북간 정치·군사적 영향에 민감하다'는 응답 비율이 입주업체는 100%, 전문가들은 71.4%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3통 문제 등 제도적 장치 미비'로 전문가들은 28.6%로 나타났다.(한국산업단지공단·현대경제연구원, 전게서, 2013. 1. 23.).

- **노동력 부족** : 개성 인근의 인력 공급은 이미 한계에 달해, 저임금 노동력 활용이란 공단 진출의 근본적 배경과 사업의 추가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노동력 부족은 입주기업들의 과다 고용과 복측의 임금 인상 빌미로도 작용
- **노무관리의 자율성 부족** : 복측 근로자들의 고용과 해고, 인사 배치, 작업 지시 등 인사·노무 관리의 자율성과 결정권이 부족
 -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은 북한 직장장이 갖고 있어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지각과 결근 등으로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발생
 -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북한 근로자들의 직업·기술 교육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고급 기술 인력 미확보는 생산성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
- **원산지 규정과 전략물자 통제, 금융·세계상의 지원 미흡 등**
 - **원산지 규정** : 개성공단 제품의 고관세율 적용과 최혜국 대우 및 일반관세특혜 제외 등으로 해외 수출과 외자유치, 개성공단 국제화 등에 불리하게 작용
 - **전략물자 통제**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고성능·정밀기계 제품의 반출이 제한되어 있어, 이는 개성공단이 고부가 생산기지로의 발전에 장애
 - **정부 지원 미흡** :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정부 보증을 포함한 자금 지원과 경험보험 미흡 등 현행 금융·세계상의 지원 제도에 불만을 표시

③ 종합 평가

- **개성공단 사업은 연간 4.7억 달러를 생산하는 남북 상생의 경제생활공동체로 성장했으나, 정치·군사적 요인에 대한 민감성 등으로 한계가 존재**

	주요 내용
긍정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수 : 2005년 6,520명 → 2014년 5만 4,171명 - 생산액 : 2005년 1,491만 달러 → 2014년 4만 8,000만 달러(예상) - 총교역 대비 개성공단 비중 : 2005년 16.7% → 2014년 99.7% - 남북 상생의 경험모델 : 남한 642.8억 달러, 북한 43.9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13년간 : 남한 32.6억 달러, 북한 3.8억 달러 · 2014~3단계 완성 : 남한 610.2억 달러, 북한 40.1억 달러 - 남북 상생의 경험 모델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실험장 제공
한계와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군사적 요인에 민감한 영향 - 법·제도화 장치와 노동력 공급 대책, 노무관리의 자율성 등이 미흡 - 해외 판로 확보 대책 미흡 :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주 : 긍정적 성과 부문의 2014년 통계는 8월 현재임.

3.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첫째,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최소화와 정경분리 원칙을 토대로 개성공단 지역을 정치 중립화
 - 개성공단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모델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모두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여 정치·군사적 사안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임
 - 개성공단 사업은 경협을 통해 북한 포병부대를 후방으로 이동시킨 '경제와 안보 선순환'의 좋은 사례로,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 절감 효과도 있으므로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투자'라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 둘째, 5.24 조치 완화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를 허용
 - 신규투자 허용과 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개성공단 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U-Turn 기지로 활용을 확대하고, 1단계 사업을 내실화
 - 신규 투자 허용 : 기존 진출 기업의 증설과 투자 미착수 기업들의 투자를 허용하여 개성공단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함
 - 인력 수급 대책 마련 : 부족 인력 해결을 위한 기숙소 건설이나 출퇴근 도로 보수, 통근 버스 확대 등을 통한 원거리 지역의 인력 흡수 방안을 모색
- 셋째, 개성공단 사업을 남북 상생의 성공적 경협 모델로 정착시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 구상 실현의 마중물로 활용
 -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 없이는 남북간 대규모 경협 사업은 불가능할 것임
 - 개성공단 사업은 DMZ 통과 사업으로, 활성화를 위한 남북간 협력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북측의 협조 유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경의선의 재개통과 확장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넷째, 중장기적으로 확대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통합형 모델과 국제화를 병행 추진하는 한편, 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노력이 필요

- **통합형 개성공업지구로 개발** : 현재 단순 제조업 위주의 공단에서, 2~3단계로 확장하여 첨단·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과 관광·상업·물류 등이 추가된 '통합형 개성공업지구'를 구축하여 확대 발전시켜나아가야 함
 - **국제적 공단으로 구축** : 개성공단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개발 사업에 국제자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제적 공단의 기틀 마련
 - **자본의 국제화** : 다국적 기업 참여 유도는 투자 자본의 확대 효과는 물론, 개성공단의 국제적 이미지와 대외 신인도 제고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기술의 국제화** : 선진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개성공단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추구
 - **법·제도와 행정서비스의 국제화** : 3통(통신, 통행, 통관) 확대와 4대 경협합의서 등 법·제도의 국제화를 통해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 계기로 작용
 - **국내산 인정 노력** : 해외 판로 확보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특례 인정과 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
 - 한중 FTA 합의 성과를 토대로 한미 및 한EU FTA 등과도 개성공단 제품이 '역외가공지역'으로 특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³⁾
- 다섯째, 북측도 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합의문을 토대로 3통 문제 개선, 노무관리의 자율성 보장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해결
- **3통 문제 해결** : 상시통행 허용과 24시간 통과시스템 도입, PC방 형태의 제한적 전산센터 운영과 인터넷·이동전화 허용, 그리고 선별검사와 통관 시스템의 표준화로 통합시스템 구축 등
 - **노무 관리의 자율성 보장** : 입주기업에게 북한 인력의 노무관리(작업지시·기술지도)와 인사권(근로자 채용·배치)에 대한 재량권 부여로 노동생산성 제고
 - **고급 인력 육성** : 기 설립된 기술교육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기술 습득과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경제연구본부 홍순직 수석연구위원(sjhong@hri.co.kr, 031-288-7964)

3) 한중 FTA 체결(2014. 11. 10)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대중국 시장 수출과 중국 기업 및 서방기업들의 개성공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성공단 국제화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부록 1> 역외가공지역 인정 사례와 한계 참조).

< 부록 1 > 역외가공지역 인정 사례와 한계

○ 미국의 요르단, 이집트에 대한 역외가공지역(QIZ ; Qualified Industrial Zones)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 QIZ는 중동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정치·외교적) 프로그램으로, 미국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미국이 요르단과 이집트에 제공하는 특혜 조치가 유일함
 -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에 맺은 평화협정(1994)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요르단에 제공한 경제 인센티브이자 미국주도로 창설된 RBC(Regional Business Council ; 미국 주도로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업인들 간의 상공회의소 성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 QIZ는 수출대상 국가에 관계없이 세제·통관 등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수출특화 산업단지(EPZ : Export Processing Zone)와는 달리,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하는 변형된 형태임
- QIZ는 요르단, 이집트와 West Bank 및 가자지구의 특정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임
 - 첫 협정은 1997년 이스라엘-요르단 간에 체결되었고, 1998년 3월 美무역대표부(USTR)가 암만 북쪽 8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요르단 북부 도시 Irbid내 AL-Hassan Industrial Estate (HIE-QIZ, 산업단지)를 세계 최초의 QIZ로 지정했으며, 1999년 후반부터 작동
 - 2004년 12월에는 이집트 정부도 QIZ 프로그램에 본격 참여
 - 2011년 현재, 요르단 QIZ는 11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집트 QIZ는 4개 지역에 717개 기업이 진출
- 특히 미-이스라엘 FTA에서 이스라엘 기업이 QIZ를 활용하게 되면 8%(요르단 QIZ) 혹은 10.5%(이집트 QIZ)의 부가가치만으로도 미국 시장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조건을 충족
 - 요르단 QIZ에는 대부분 봉제업종이 진출해있고, 홍콩, 대만, 중국 기업들이 미-요르단 FTA의 수혜자임

○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 조건) 한미 FTA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이 최대 관건임

- 지정 기준 : ① 한반도 비핵화 진전 ② 역외가공지역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 역외가공지역 내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준·관행, 임금 관행, 영업 및 경영 관행을 참고하여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을 지정

< 부록 2 > 개성공단 사업 일지

일자	추진 내용
2000. 08.	· 현대아산-북한 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2. 08	· 남북경제협력추진촉, 개성공단 착공 추진에 합의
2002. 11	·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 06	·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착공식
2004. 04	· 통일부, 1단계 100만평(3.3km ²) 협력사업 승인
2004. 06	· 시범단지 15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
2004. 12	·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 09	· 1단계 본 단지 1차 24개 입주기업 선정 및 계약 체결
2007. 05	· 한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 06	· 1단계 본 단지 2차 183개 입주기업 선정 및 계약 체결
2008. 11	· 누적 총 생산액 5억 달러 달성
2009. 05	· 북한, 개성공단 관련법규 및 계약 무효 선언
2009. 06	· 남북한, 1~2차 개성실무회담
2009. 07	· 남북한, 3차 개성실무회담
2010. 05	· 한국,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조치 시행
2010. 07	· 북한 근로자 총 임금 지급액 1억 달러 달성
2010. 09	· 누적 총 생산액 10억 달러 달성
2011. 12	· 누적 총 생산액 15억 달러 달성
2012. 10	· 북한, 개성공단 8개 기업에 총 16만 달러 과세 일방 부과
2013. 03	· 북한, 최고 존엄 훼손 시 개성공단 폐쇄 발표
2013. 04	· 김양건 북한 대남 담당 비서,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 발표 ·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에 따른 사실상 가동 중단
2013. 05	· 남한, 잔류 인원 7명 전원 귀환
2013. 06	· 북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당국회담 제의 (格 문제로 결렬)
2013. 07	· 남북 실무회담 개최 (개성공단 정상화 인식 공유)
2013. 08	·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5개항 정상화 합의)
2013. 09	· 개성공단 재가동 (9. 16)
2014. 04	·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 방문(4. 29) · KOTRA,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시스브로 설명회 개최(4. 29) ※ 시스브로 : SISBRO · 남과 북은 한민족이자 형제자매라는 뜻
2014. 05	·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및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 방문(5. 2)
2014. 06	· 독일 바늘업체, ‘그로쯔 베커르트’ 영업점 설치...외국 기업 최초
2014. 08	·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방문 행사 요원 7,000명 단체복 제공
2014. 10	· 공동 의류브랜드 SISBRO, 첫 홈쇼핑에서 매진 판매(10. 24)
2014. 11	· 한중 FTA 체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합의 (11. 10)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3 연간	2014				2015 연간(E)	
			1/4	2/4	3/4	연간(E)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3.0	3.9	3.5	3.2	3.6	3.6	
	민간소비(%)	2.0	2.5	1.5	1.5	2.3	2.8	
	건설투자(%)	6.7	4.3	0.2	2.6	1.9	3.0	
	설비투자(%)	-1.5	7.3	7.7	4.3	5.7	5.1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	799	151	241	227	800	68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억 \$)	441	52	149	91	433	426
		수출(억 \$)	5,596	1,376	1,457	1,421	5,770	6,023
		증감률(%)	(2.1)	(1.7)	(3.2)	(3.9)	(3.1)	(4.4)
		수입(억 \$)	5,156	1,323	1,308	1,331	5,336	5,597
증감률(%)	(-0.8)	(2.0)	(3.2)	(5.6)	(3.5)	(4.9)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1.1	1.6	1.4	1.7	1.9	
실업률(%)		3.1	4.0	3.7	3.3	3.6	3.4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